

국외출장보고서

- 출장자: 김상호 원장, 김종훈 연구위원, 유삼현 부연구위원

- 출장지: 독일 비스바덴 독일연방인구연구소(BiB: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, Wiesbaden, Germany)
 Prof. Norbert Schneider, Prof. Bernhard Koeppen, Dr. Tim Aeverman, Michael Muhlichen, Marie-Kristin Maass

- 출장기간: 2017년 6월 20일 ~ 2017년 6월 24일

- 출장목적
 - 연구용역 연구결과 초안 공유
 - 연구보고서 검토 및 수정방안 제시
 - 연구보고서 출판전략 및 향후일정 협의
 - 양 기관 간 교류 및 연구협력 논의

■ 세부활동

년월일	행 선 지 (국가/도시)	방문기관/면담자	활 동 사 항
2017.06.20	독일/비스바덴	이동	인천-프랑크푸르트
2017.06.21	독일/비스바덴	독일연방연구소/ Prof. Norbert Schneider, Prof. Bernhard Koeppen, Dr. Tim Aeverman, Michael Muhlichen	-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- 연구보고서 초안 공유
2017.06.22	독일/비스바덴	독일연방연구소/ Prof. Dr. Norbert F. Schneider, Dr. Tim Aeverman, Prof. Dr. Bernhard Koeppen, Marie-Kristin Maass	- 연구 개선점 및 수정방안 논의 - 독일 및 유럽 내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동연구 주제 탐색 - 양 기관 교류 및 연구협력 논의
2017.06.23	독일/비스바덴	독일연방연구소/ Prof. Dr. Norbert F. Schneider, Dr. Tim Aeverman, Prof. Dr. Bernhard Koeppen, Marie-Kristin Maass	- 연구보고서 출판전략 및 향후 과제일정 논의 - 프랑크푸르트 이동
2017.06.24	한국	복귀	인천 도착

[회의 1]

◆ 일시 및 장소: 2016. 6. 21. 수 9:30~16:00, BiB 1층 회의실

◆ 안 건: 연구결과 초안 발표 및 토론

◆ 참석자: 원외) Prof. Norbert Schneider, Prof. Bernhard Koeppen, Dr. Tim Aeberman,
Michael Muhlichen
원내) 김상호 원장, 김종훈 연구위원, 유삼현 부연구위원

◆ 회의내용:

○ 이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및 구서독 지역에서 나타난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토대로 장·단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한국의 통일 상황에 인구학적·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차 년도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있음

○ 통일 이후 독일의 각 주에서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설과 연구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음

□ 독일사회의 재통합은 인구학적 변수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라도, 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
□ 같은 맥락에서 주요 인구학적 지표들이 점점 비슷해지거나,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됨(convergence vs. divergence)

□ 만약 주요 인구학적 행위가 유사해지거나 달라지고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간적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거나, 통계지표로서 할 수 있을 것임

○ 주요 연구결과 발표

□ 독일 통일 이후 최근까지 구 서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.4~1.5 정도에서 유지된 반면, 구 동독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.5 이상 높은 수준에서 통일 후 3~4년 내 0.8 수준까지 급락하였고,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0년 이후 서독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□ 역사적으로 두 지역의 혼인 및 가족 관련 문화가 분단 이전부터 조금 달랐기 때문에 조이혼율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,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 직후 조혼인율이 크게 하락한 점을 제외한다면, 두 지역 조혼인율의 장기적 추세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

□ 각주별 인구의 평균연령은 1991년 통일 직후 구동독 지역이 구서독 지역에 비해 1~3세 정도 각각 낮은 상태였지만, 2015년의 현재, 반대로 구동독 지역이 평균 1~3세 정도 높은 상태에 있음

□ 각 지역별 국내이동 및 인구성장 역시, 구동독 지역은 최근(2011-2015)까지 높은 수준의 인구유출과 함께 주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, 구서독 지역 특히 독일 남부 지역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인구유입과 인구증가를 경험하고 있음

□ 통일 이후 인구변화의 주원인은 통일 과정에서의 제도변화, 경제적 상황,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동독 지역 청년층의 구서독 지역으로의 인구이동, 그리고 구동독 내 교육 및 공업중심의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

○ 주요 논의 및 토론

□ 독일 통일 이후 많은 인구학적 지표들이 유사해지고 있지만, 통일 당시의 단기적

인구변동은 구 동·서독 지역 모든 곳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해 왔음

- 정치적 급변은 장기적 인구변화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요인은 좀 더 넓고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
- 통일에 의한 인구변화는 구 동·서독 지역 간 인구이동은 물론 각 지역 내 도농간 인구이동을 촉진시켜, 지역 인구구조를 분해 및 재구성하여 중·장기 인구성장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독일의 사례가 한국의 청사진이 될 수는 없지만 정치적·사회적으로 상이한 두 사회의 통일 후 나타날 수 있는 인구학적 변화에 함의를 줄 수 있음

[회의 2]

◆ 일시 및 장소: 2016. 6. 22. 목 10:00~16:00, BiB 1층 회의실, 3층 Prof. Koeppen 사무실

◆ 안 건: 연구보고서 수정방안 논의/ 향후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논의

◆ 참석자: 원외) Prof. Bernhard Koeppen, Dr. Tim Aeverman, Marie-Kristin Maass
원내) 김상호 원장, 김종훈 연구위원, 유삼현 부연구위원

◆ 회의내용:

-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방향과 주요 연구가설에 동의하며 이미 일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
-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, 연구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논의 및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함
- 과제 진행 및 보고서 구성적 측면
 - 보고서 초안이 9월 말까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, 이를 위해 보고서 후반부 일부 챕터에 포함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및 토론이 필요함
 - 주요 관심사가 독일 통일과 그 장·단기 인구학적 변화이기 때문에 후반부 한국 관련 챕터에서 통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모두 다루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,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통일 후 인구학적 변화에 주요 관심을 두기로 하고 ‘단계적 통일’ 시나리오의 경우 이의 연장사례로 간주하여 원고를 준비하고 있음
 - 구성적 측면에서 각 분야의 내용이나 순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함
- 내용적 측면
 - 과거 국·내외 일부 선행연구가 있는 만큼, 문헌검토 부분을 강화하여 이 연구의 의미 및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
 - 독일 통일 후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세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가설설정과 그 검증이 이 연구의 중요 부분인 만큼,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 부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
 - 독일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인상적이며 한국사회에 많은 함의가 있는 만큼 “Deutschland 25”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포함시킬 것을 권유함

- 구 동·서독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개인주의, 물질주의, 가족가치 등 출산 및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및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지,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출산 관련 챗터에서 구 동·서독 지역의 인구학적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초혼연령, 초산연령, 출생아수 분포, 가족구성 유형 등 좀 더 다양한 지표가 제시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음
- 북한 지역의 열악한 보건환경을 고려하면, 구동독 지역의 보건 및 사망률 수준이 어떻게 향상되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성별·연령별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지표와 시설 및 환경적 요인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○ 기타 논의사항

- 구동독 지역의 합계출산율 변동의 이해와 원인
- 두 지역의 이혼율 추세의 유사성을 인구학적 유사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해석상의 문제점
- 인구이동 효과의 경험적 검증여부 및 실무적·방법론적 측면에서의 한계점
- 일부 용어 및 지표들의 수정·보완 필요성

○ 향후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논의

- 현재 연구 진행과정 전반은 물론 그 과정에서 실무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따라서 유사한 방식으로 향후 연구협력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
- 양 기관 담당 연구진 변경사항 및 행정관련 변동사항 공유
- 향후 공동연구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, 주제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연구협력 방안은 각 기관의 내부논의 후 추가로 협의하기로 함

[일정 3]

- ◆ 일시 및 장소: 2016. 6. 23. 금 11:00~15:00, BiB 1층 회의실
- ◆ 안 건: 연구보고서 출판전략 및 향후 과제일정 논의
- ◆ 참석자: 원외) Prof. Norbert Schneider, Prof. Bernhard Koeppen, Dr. Tim Aeberman, Marie-Kristin Maass
원내) 김상호 원장, 김종훈 연구위원, 유삼현 부연구위원

◆ 회의내용:

- 독일연방인구연구소(BiB): 연구보고서에 관해 지적된 사항에 공감하며 대부분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며, 구체적인 부분은 연구진간 연락을 통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며, 자료의 제약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정리하기로 함
- 양 기관은 참여연구진간 상호논의를 통해 연구보고서 출판 및 향후 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

- 최종 연구보고서는 단행본의 형태로 실제 2017년 내 출판을 목표로 하며, 출판사 섭외(예, “Verlag Barbara Budrich”) 및 편집은 독일연방연구소(BiB)측이 맡기로 함
- 국제저명학술지(international peer-reviewed journal) 논문 게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BiB의 협력을 통해 보고서 출판 후 추가적으로 진행하며 적극 협력하도록 함
- 최종보고서 작성에 관해 합의한 구체적인 향후일정
 - 9월 1일: 한국 관련 부분 작성 완료 및 공유
 - 9월 15일: 최종보고서 초안 완성
 - 10월 15일: 최종보고서 원고 완료
 - 12월: 단행본 출판예정
-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내용
 - 인구변화의 3요소(출산, 사망, 이동)에 관한 검토
 - 독일 통일 후 인구변화의 4가지 측면
 - 세계화 및 탈근대화(post-modernism)
 - 장기적 인구학적 행위변화
 - 독일 통일의 직접적 영향
 - 통일 후 인구이동 및 인구구성의 재분포에 의한 변화
 - 한반도 통일 사례에 중요한 인구통계 관련 지표 및 변수들의 분석결과